30년 동행 넘어 세계 디아스포라 연대로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출범식 의미

광주한글학교에서 주민 지원 조례까지…광주가 쌓아온 연대의 시간
90주년 사업, 추모 넘어 기록 · 교육 · 문화교류 지속 가능 플랫폼으로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내몰린 고려인의 강제이주가 2027년 90주년을 맞는다. 광주에서 출범한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이 역사를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다음 세대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공동의 기억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광주와 고려인의 인연은 1991년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 회복과 모국어 교육을 돕기 위한 광주한글학교 설립사업에서 출발했다. 2013년에는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2017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을 거치며 연대의 범위는 역사·문화·인권·정착 지원으로 넓어졌다. 이번 90주년 사업은 그 30여 년의 경험을 정리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

출범식 1부에서 홍인화 공동대표는 '고려인·한인과 함께 걸어온 광주'를 주제로 이 같은 역사를 짚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영상 〈1937년〉 상영에 이어 고려인대안학교 새론스쿨 학생들이 〈독립군 애국가〉를 부른 장면은 강제이주의 기억이 후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점도 상징적이다. 고려인의 역사는 한 민족의 수난사인 동시에 전쟁과 국경, 강제이주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낸 세계 디아스포라의 역사다. 아시아문화교류의 거점인 문화전당에서 출범식을 연 것은 광주와 중앙아시아에 머물던 기억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념공연은 이러한 메시지를 예술로 풀어냈다. 김연우 무용가와 고려인민남예술단 김올가의 무채출을 시작으로 영상 〈고려인의 삶〉, 고려인무용단 BIG FINGERS의 〈두 나라의 우정〉과 〈고려인의 길〉,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고려인의 노래〉가 무대에 올랐다. 전체 출연진의 〈고려아리랑〉은 고난과 이주, 정착과 희망의 시간을 하나의 서사로 묶었다.

90주년 사업의 핵심은 '기억의 확장'이다. 국제포럼과 국제영화제는 학술·영상 기록을 축적하고, 러시아와 CIS 지역 고려인 예술단 조정공연은 흩어진 공동체의 문화적 연결을 복원한다. 강제이주 경로를 직접 답사해 다큐멘터리로 남기는 사업은 현장 기록을 미래 세대의 교육 자료로 전환한다.

타슈켄트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은 국제기념사업의 또 다른 축이다. 강제이주와 중앙아시아 정착, 민족문화 보존의 역사를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공간이 마련되면 광주의 기록·문화사업과 연결할 국제 교류 기반도 넓어진다.

조선대학교의 국제포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영화제, 중앙아시아의 현장 기록이 서로 이어질 때 90주년 사업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기억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고려인 당사자와 다음 세대가 사업의 주체로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다. 자료 수집과 구술 기록, 다언어 아카이브, 청소년 교육, 국내외 기관 협력까지 장기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 광주가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연대의 경험은 그 출발점이다. 90년의 기억을 세계와 나누는 일은 과거를 추모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강제이주의 상처를 인권과 평화의 언어로 바꾸고, 서로 다른 삶을 잇는 미래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다.

고려인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광주가 고려인 공동체와 함께해 온 30여 년의 교류 경험을 트대로 '30년의 동행, 90년의 기억, 세계와 함께 여는 미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서림교회 담임 최용희 목사(왼쪽)가 호남신학대학교 황민효 총장에게 개교 70주년 발전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서림교회, 호신대 개교 70주년 발전기부금

최용희 목사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설교

서림교회(담임목사 최용희)가 지난 9월 22일(화)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황민효)를 방문, 개교 70주년 발전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은 호남신학대학교 화요예배와 함께 거행되었으며, 최용희 목사가 황민효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최용희 목사는 이날 화요예배 설교자로 나서 베드로전서 4장 7~11절을 본문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서림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와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을 흘려보내자"라는 목회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육과 선교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교회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르간 봉헌 및 기념 부활절 칸타타 등을 준비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2026광주전남' 성료 감사 예배

김근임 목사 광주전남 본부장 취임, 윤구현 목사 자문위원 위촉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NYSKC Family Conference) 2026 광주·전남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 나이스크 본부는 감사예배 및 본부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나이스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6일 금호소망교회에서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NYSKC Family Conference)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나이스크 월드미션(NYSKC World Mission)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는 요한복음 3장 28~30절에 말씀을 통해 '보디 콜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개들이 양 떼를 목자로 몰듯이 나이스크 무브먼트에 속한 모든 나이스크니안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때 무너져 가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브먼트를 펼치는 나이스크니안들은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양 떼를 모는 일을 중실히 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그동안 부본부장으로 활동해온 김근임 목사가 본부장에 취임했고, 지난 10년 동안 부본부장을 거쳐 본부장으로 활동해온 윤구현 목사는 이임과 동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근임 목사는 나이스크 월드 미션에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자문위원에 위촉된 윤구현 목사는 나이스크를 사랑해온 마음을 변치않고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이스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6일 금호소망교회에서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2026' 성료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근임 목사(가운데)가 본부장에 취임했고, 윤구현 목사는 이임과 동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설

文 이박행 목사
미션21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사과 없이 떠난 장군과 진실을 말한 장군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최고지휘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13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에 병력을 지원하고 무력진압에 관여한 책임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죽음으로 발포 지휘체계와 행방불명자 문제 등에 관한 진실을 직접 듣고 책임 있는 사죄를 받을 기회도 사라졌다.

44년 뒤 대한민국은 다시 계엄군과 마주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다. 그는 처음부터 불법명령을 거부한 영웅이 아니다. 계엄군을 출동시킨 지휘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책임에 합당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 특전사령관이 역사 앞에서 보인 태도는 분명히 달랐다. 곽종근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불법 지시를 증언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했으며, 최후진술에서는 자신보다 명령에 따라 움직인 부하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이 실패한 이유도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의 저항과 현장 지휘관·장병들의 소극적 불복종에서 찾았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공은 시민과 부하에게 돌리려 한 것이다.

12·3 계엄을 좌절시킨 시민저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피와 저항이 있다. 당시 광주는 군에 포위되고 언론마저 통제된 채 고립됐지만, 시민들은 국가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 희생은 민주주의란 권력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시민이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권리임을 가르쳤다. 44년 뒤 시민들은 한밤중 국회로 달려가 군용차량을 막고 계엄군의 진입에 항의했다. 1980년 광주는 고립됐지만, 2024년 국회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오월의 기억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항체가 된 것이다.

5·18이머니회와 광주시의원들이 곽종근의 선처를 탄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탄원은 그의 책임을 없애 달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힌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다. 진실을 말한 사람과 끝까지 책임을 부인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면, 다음 국기범죄의 순간에 누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증언하겠는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도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과 부하들의 짐까지 짊어지는 데서 드러난다. 법원은 곽종근의 계엄 가담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되, 그의 반성과 진실 규명 협조도 마땅히 살펴야 한다. 책임을 묻는 정의와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주는 자비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군 명예도 맹목적 복종에서 세워지지 않는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며, 위법한 명령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때 군은 국민의 군대로 설 수 있다. 지휘관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월정신은 과거를 기념하는 의식에 머물지 않는다. 불의한 권력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할 때 시민은 저항하고, 군인은 불법명령을 거부하며, 책임자는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살아 있는 명령이다. 사과 없이 떠난 장군과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장군을 역사는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